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6일 목요일 음 6월 24일 (1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8℃, 낮 최고기온은 32~35℃로 예상된다.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예정이다니 유의해야겠다.

기상정보

27-33℃

파고 1.0-2.5m

파고 1.5-3.5m

27-32℃

파고 1.5-3.5m

26-32℃

파고 1.5-3.5m

28-35℃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26/34℃

모레 ☁ 흐림 26/32℃

월드뉴스

우크라 “러, 서부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최대 120발·발사대 6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서부 보로네지주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에 배속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가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과 운용 인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주 중부 지역 민가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져 일가족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 미사일을 발사해 왔으며, 북한은 2025년 8월까지 약



2024년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발견된 북한산 추정 미사일 잔해의 모습. 연합뉴스

150발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산업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자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미사일 사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으로 방공 공백을 겪고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지원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배치는 북러 군사 협력의 추가 확대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류성필
공학박사

제주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깊은 우려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제주에 나타나고 있는 경고등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기존 산업구조가 지닌 한계가 드러난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제주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침체를 겪었으며, 2026년 1분기 1.7% 증가로 가까스로 반등했으나 전국 평균(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설업은 9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업 비중이 74%

제주를 산업의 섬으로!

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은 3.1%에 불과한 불균형한 산업구조는 외풍에 극도로 취약하여, 관광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지역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이탈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4273명의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며, 특히 20대 순유출률은 3.2%에 달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청년들을 섬 밖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미래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제주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넘어, 섬의 고유 자원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관광과 농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관광 성과는 입도객 수가 아닌 체

류 기간, 1인당 지출액, 재방문율을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휴양에 의료·웰니스·위케이션·MICE 등을 결합해 '제값을 내고 오래 머무는 제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농업은 드론과 AI를 활용한 재배면적 예측, 농산물 가공 및 기능성 식품 개발, 공동 물류체계 구축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내야 한다. 둘째, 신산업 간 융합과 '제주형 인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AI, 에너지, 바이오, 우주산업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은 개별 산업에 그치지 않고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 기관, 기업이 함께 AI·에너지·바이오·우주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결하는 '제주형 인재계약제'와 주거·교육 복지를 병행해 청년을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지원 체계를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분산된 창업·R&D·금융·수출 지원을 통합하고, 단순 지원 건수가 아닌 매출, 고용, 도내 조달률 등 실질적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제주테크노파크를 축으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산업 전환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제주의 청정 자연은 보존해야 할 유산이자 새로운 신산업의 원천이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환경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드는 정교한 지역 산업 전략이 요구된다. 관광객만 넘쳐나는 섬을 넘어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성장하며 도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산업의 섬'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열린마당

제주해변공연장은 명품 야외 공연장이다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이사

제주해변공연장. 바닷가를 마주한 관객들을 가슴 가득 품은 모습으로 1995년 탄생한 야외 공연장이다. 엄청난 열기의 개관 기념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제주국제관악제, 탐라문화제, 제주해변예술축제 등 다양한 예술행사가 무대를 장식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위안과 낭만을 나누어왔다. 이제는 어언 30여 년 세월 속에 쉬운 접근성, 탁 트인 바다의 매력과 함께 제주 문화 예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내 어디에도 견줄 바 없는 가장 제주다운 대체 불가의 명품 야외 공연장이 되었다. 제주해변공연장이 국토교통부의

제주 경제 도약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시작



박인천
국가데이터터 제주사무소장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관광객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유가 및 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상승하면서 도내 운수업과 관광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건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주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항공·해운 여객 및 화물 운송, 렌터카와 버스 등 이동 생태계가 흔들리면 도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일수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데이터터 제주사무소는

오늘부터 이달 27일까지 도내 약 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역 핵심 산업인 운수업의 구조적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한편, 도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활동 실태와 체질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규모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제주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 데이터는 제주 맞춤형 경제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무더운 혹서기 속에서 응답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문조사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제주 운수업과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 학계의 연구활동 등에 활용되며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가 제주 경제의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한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로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myu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